

배포 일시	2022. 12. 27.(화)		
담당 부서	도로국 도로시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 김형철 (044-201-3927)
		담당자	사무관 강지연 (044-201-3922)
			주무관 송정근 (044-201-3923)
보도일시	2022년 12월 28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7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도 교통사고 위험 낮추고 소통 크게 개선한다

- 국토부, 위험도로·병목지점 개선에 1조 7천억 원 신규 투자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도로구조가 취약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크거나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국도 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.
 - 이를 위해 국토부는 12월 27일 「위험도로·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 계획(2023~2027)」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.
 - 사업 완료 구간의 효과 분석 결과, 위험도로 개선 사업은 전후 3년간 사고 건수가 18%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13% 감소하였고, 병목지점 개선사업은 전·후 1년간 사고건수 63% 감소, 사망자수 63% 감소, 속도 4.9%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(’21, 한국교통연구원)
-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와 지방국토관리청의 수요 조사(’21.5 ~’21.11), 현장조사(’22.1~’22.5), 전문기관(한국교통연구원)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512개소(위험도로 개선 140개소, 병목지점 개선 372개소) 사업을 최종 선정*하였다.
 - * 국도가 아닌 도로, 국도 중 지자체가 관리하는 구간, 타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, 도로시설기준에 위배되는 사업, 효과가 미흡한 사업 등은 제외

【 위험도로·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 현황 】

구분	합계	위험도로	병목지점				
			소계	교차로	단구간	입체횡단시설	버스정차대
사업수(개소)	512	140	372	308	35	6	23
사업비(억원)	16,892	6,641	10,251	8,301	1,745	152	53

□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유형은 다음과 같다.

① 위험도로 개선(140개소)

- 급커브, 급경사 구간의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, 차로폭이 협소한 구간의 확장 등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였다.

② 교차로 개선사업(308개소)

- 신호가 있는 교차로 구간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회전교차로·입체교차로 설치, 국도 주변 진·출입을 위한 연결로 설치 등이 필요한 구간을 선정하였다.

③ 단(짧은)구간 개선(35개소)

- 차로수의 차이로 인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구간, 왕복 2차선 오르막 구간에서 저속차량으로 인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차로 신설이 필요한 구간 등을 선정하였다.

④ 입체횡단시설 설치(6개소)

- 보행자가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 하부에 보행자 통로 박스 설치, 도로 상부에 보행육교, 승강기 등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을 선정하였다.

⑤ 버스정차시설 설치(23개소)

- 마을 주민의 버스 승하차 편의를 위해 버스정차대, 버스정류장 등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였다.

-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된 512개 사업은 매년 확보되는 예산* 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.

* 2023년 위험도로·병목지점 개선사업 예산 : 2,970억 원

-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“위험도로·병목지점 개선사업을 통해 기존 도로에 존재하는 사고 위험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는 한편, 교차로 등 주요 정체구간의 통행 흐름 개선과 보행자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” 라고 밝혔다.

